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9월 9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89 호

원우회의 자비행

"참으로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물질의 크기보다 마음의 나눔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총무원에 근무하는 종무원들의 신행활동과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원우회(회장 전형근, 교육원 교육과장).

원우회는 94년 11월 창립한 이후 매월 2회의 정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기법회를 비롯한 성지순례 등을 통한 신심증장, 회원들의 부조사업과 포교 및 교육·문화 산양사업, 불교적 소양의 수련을 위한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에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비문중의 대들보임을 자부하는 이들의 자비행이 밝은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소년소녀가장 7명과 무의탁노인 1명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 회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넉넉해

서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굴러가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전형근 과장의 말이다.

총무원청사 현관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는 총무원청사 5층 법당에 연등달기 운동을 펼쳐 회원들이 직접 만든 연등을 달았다. 전철정액권 판매도 실시했다. 큰 돈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등을 판매해서는 3백여만원을 모았다. 정액권 판매이익금은 한달에 교작 5만원 안팎.

'온갖 세계는 오직 하나의 마음뿐(화엄경)' '마음은 온갖 것을 만드는 기술자와 같다(입능가경)'고 했다. 종무원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한 스님이 총무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 전액 1천만원을 선뜻 내놨다. 이제 1천4백여만원 가량의 이웃돕기 기금이 마련됐다. 이 기금의 이자로 매달 8명의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노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음은 자꾸 커지고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청정승가 만들자"

5일 승-재가단체 '불교도 참회법회' '조계종 지도자 결의대회' 열기로

청정승가의 기풍을 새롭게 다지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승단의 자정을 발원하는 대규모 집회가 5일 조계종 총무원 앞마당에서 열렸다. 또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주지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화이념의 계승과 승풍쇄신을 결의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달말이나 10월 초에 열린다.

불교인권위원회, 녹림회, 선우도량등 7개 승기단체와 우리는 선우, 경불련, 동산반아회등 8개 재가단체는 5일 '청정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를 갖고 지난달 발생한 '도박승' 사건과 관련한 승단의 참회와 자정의지를 다졌다. 이날 법회는 1천80배 정진과 참회문, 발원문 낭독 선명서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삼보의 정재를 훼손하며 승단의 위의를 실추하여 스스로 사자의 몸을 갉는 무서운 죄업을 그치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승려도박 사건과 꼬리를 무는 해불사건, 문화재 도난 사건 등에 대한 종단적 대처 의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화이념 계승과 승풍쇄신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대회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은 총무원이 면밀한 검토 후에 정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회의에서 "승단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틈을 타서 이교도에 의한 해불이 연발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최근의 불미스런 사태들을 두고 집행부가 회의를 거듭해 9월말이나 10월초에 대규모 대회를 갖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회는 정화이념의 계승, 승풍쇄신, 승가의 자정노력과 종단 위상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승풍 실추행위 강력 단속 예방

조계종 호법국장회의

조계종은 스님들의 승풍실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펴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오후2시 제5회 교구호법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종교관행 사례와 해불행위에 대한 예방과 기민한 대처를 위한 업무 유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연태 기자

농지법 시행규칙 곧 입법화

빠르면 다음달 전통사찰 농지취득 가능

빠르면 다음달부터 조계종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은 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96년 12월11일자로 불자국회의원 47명이 의원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취하될 경우 곧바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것"이라며 "현재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취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종단내 전통사찰은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조계종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30여만평의 농지가 해당 사찰 명의로 변경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정의하는 동법 제4조의 공공단체 범위 제6항에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사찰 고유의 목적을 위해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경내지에 안근한 농자의 취득을 필요로하는 전통사찰'을 규정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 3일 원적

태고종 제15세 종정 보성당 두석 대종사가 3일 오후3시40분 신촌 봉원사 운수각에서 좌탈입망에 들었다. 세수 92세, 법랍 79세.

보성스님은 원적에 들기 며칠전 원주 보림사에서 서울 봉원사로 거처를 옮겨 종단 간부들과 제자들을 불러 "종단의 화합과 불교발전에 힘쓰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의 영결식은 종단장으로 7일 봉원사에서, 다비식은 그동안 주석해 온 원주 치악산 보림사에서 각각 엄수됐다.

보성스님은 1919년 강원도 건봉사에서 보련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총장, 종승위원장, 중앙종회의장, 제12, 14, 15세 종정을 역임했다. <보성스님 행장 2면> 드림선 기자 (psdo@buddhapia.com)

열반송

법과 나를 모두 다하니 이것이 멸도이니라

除盡法我是滅度(제진법아시멸도)
淸淨無餘是聖心(청정무여열반심)
習氣煩惱永不生(습기번뇌영불생)
方便生死大解苦(방도생사대해고)

법과 나를 모두 다하니 이것이 멸도이니라
남김없이 청정함이 열반심이요
습기와 번뇌가 영원히 생겨나지 않으면
바야흐로 생사대해고를 건넘이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일 김대중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에서 제2건국 운동 동참의 뜻을 밝혔다.

"제2 건국운동에 동참을"

월주스님-김대통령 1일 청와대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일 김대중대통령의 오찬초치를 받고 청와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국난극복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난 수해때 불교계가 자원봉사자들을 수재현장에 보내 지원 활동을 한 것과 불교방송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찰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사찰피해가 상당하다며 "대통령께서 불교방송등에 수재의연금을 보내 주는 등 불교계에 관심을 보여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제2건국 운동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교계 차원의 동참의지를 피력했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돼 있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봅니다.

탑을 구성한 벽돌의 무늬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층전탑(보물 제226호)과 남한강가의 비위절벽에 위치한 정자 강월헌(고려후기),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유명한 여주 신륵사와 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해 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달사지도 답사합니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륵사·목아박물관·고달사지'

◇출 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안 내: 구본만 학예연구관(여주군청 향토사료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전승공예대전과 불교예술 11면
IMF이후 사찰 새 풍속도 23면
책길따라 금강산 절 구경 8면

IMF를 이겨내는 투자의 맥

어디가 좋을까? 사찰, 전원주택,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청산컨설팅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끝~!

삼보에 귀의하옵고
상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안내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산컨설팅 대표 안 태진입니다.
이번 국내에 닥친 I.M.F 한파는
부동산 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불황속에서 매우 우수한 상품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50%이상
싼 가격의 매물이 쏟아져 우리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만한 땅이 있어서
소개하고저 합니다.

CHUNG SAN 컨설팅
02)420-5474~5/011)213-4594

부지 1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262-1번지 외 8필지
■총평수 : 6,422평(준농림, 일부 전용허가필)
■지 목 : 전, 답, 토업
■특 징 :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약 40Km 출퇴근가능
맑고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저수지를 접한 땅
주위 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음
■용 도 : 교육관부지 청소년 수련장부지 노인복지회관부지
전원주택을 짓고 농장하시며 500평, 1,000평, 1,500평, 2,000~평단위로 매수하고 공부하실 분
■투자성 : 향후 2~3년 후 I.M.F 에서 벗어나면 2~5배의 투자성이 확실한 땅
■시 세 : I.M.F 전 → 23만원 ~ 30만원 거래
I.M.F 후 → 17만원~ 20만원 거래
→ 현재 받고저 하는 금액 10만원~15만원

부지 2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 121번지
■총평수 : 2,995평(일부 전용허가득)
(준농림+보존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 급매 평당 9만원

부지 3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49번지 산 149-1번지
②필지 ⊙ 보존임지
■총평수 : 4,170평(필요시 준농림 득해서 드림)
■용 도 : 과수원, 펜, 사슴 목장, 농업용도의 개발가능 4m 진입로 확보
→ 급한 매물 평당 3만원

▶기타 더 자세한 관계서류 및 궁금사항은 전화 ☎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드립니다.